

AI가 생성한 'AI가 AI를 만들고 있는 장면' ©챗GPT-5

AI, 논쟁적 본문일수록 보수적 성경 해석에 수렴

인공지능(AI)이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적 조언을 제공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AI 기반 성경 앱과 대화형 언어모델은 개인 묵상과 성경 공부의 보조 수단을 넘어, 사실상 '해석의 중개자'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 영국성서공회가 후원하고 케임브리지 중국신학연구센터가 협력한 파일럿 연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연구진은 사용자 수와 평점이 높은 ChatGPT, Bible GPT, Cross Talk, Biblia Chat, Bible Chat 등 다섯 가지 성경 챗봇을 대상으로, 신학적으로 논쟁적인 성경 본문에 대해 반복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분석했다.

그 결과, AI 성경 해석은 논쟁적 본문일수록 보수적 해석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로마서 1장 26~27절이다. 동성 간 성관계를 다루는 이 본문에 대해 AI는 거의 예외 없이 전통적 복음주의 해석을 기본값으로 제시했다. 표현은 '사랑'과 '존중'의 언어로 완화됐지만, 결론은 동성 간 성관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행위로 규정했다.

여성의 역할을 다룬 디모데전서 2장 12절의 경우, AI는 당시에베소 교회의 문화적 배경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지만, 최종

결론에서는 남녀 역할 구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여성 리더십을 긍정하는 평등주의적 해석은 소개되더라도 예외적 견해로 처리됐고, 교회사적 다양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구원의 유일성을 선언한 요한복음 14장 6절 역시 AI의 보수적 응답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난 본문이다. AI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분명히 강조하며, 종교다원주의나 포괄주의는 설명의 대상이나 논쟁 소개 수준으로 다뤘다.

종말을 다룬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도 AI는 전통적 종말론을 중심으로 뒀다. 지옥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결과로 설명하는 해석이 우선적으로 제시됐고, 보편구원론이나 조건적 불멸설은 부차적 견해로 짧게 언급됐다. 해석의 스펙트럼은 존재했지만, 중심축은 흔들리지 않았다.

가장 난해한 본문으로 꼽히는 여호수아 정복 기사에서도, 본문에 등장하는 폭력과 진멸 명령에 대해 AI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사적 맥락'을 강조하며 설명을 수렴시켰다. 현대 윤리와의 충돌이나 폭력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깊이 다뤄지지 않았고, 윤리적 긴장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졌다.

연구진은 이러한 경향을 두고



OC목사회가 제48회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정찬군 목사가 회장으로 취임했다.

강문수 목사 이임, 정찬군 목사 취임... 복음의 본질 불들고 다음 세대 섬김 다짐

오렌지카운티목사회(이하 OC목사회)는 2월 1일(주일) 오후 5시,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성공회 가든그로브 교회에서 제48회 이·취임 감사예배 및 이·취임식을 드리고, 제47대 회장 강문수 목사에서 제48대 회장 정찬군 목사로 회장직을 이양했다.

이날 1부 감사예배는 김영일 목사(OC목사회 총무)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강정운 목사의 경배와 찬양, 최국현 목사(OC교협 회장, 임마누엘교회)대표기도, 고광호 목사 성경봉독(에스라 7장 6-10절), 무궁화합창단의 특별찬양, 최희규 목사(틴테일 국제신학대학교 교수)의 설교, 이문연 목사(OC목사회 수석부회장,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광고 순으로 진행됐다.

최희규 목사는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설교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의 소명과 책임을 강조했다.

2부 이·취임식은 송진엽 목사(OC목사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임사에서 강문수 목사는 지난 임기 동안 동역한 목회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하며, OC목사회가 앞으로도 연합과 섬김의 공동체로 계속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찬군 목사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들고,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섬기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이어 강문수 목사가 정찬군 신임 회장에게 목회기를 전달하며 축복의 뜻을 전했다. 이후 목사모함찬단은 「주는 나의 목자」와 「주는 나의 피난처」를 찬양하며 이·취임의 의미를 음악으로 나눴다.

심상은 목사(OC교협 이사장, 갈보리선교교회)와 박대근 목사(OC목사회 증경회장, 캘리포니아신학대학교 교수)가 축사를 통해 목사회와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면 시간에는 김영찬 목사(OC목사회 증경회장, 효사랑선교회 대표)와 강태광 목사(World Share USA 대표)가 목

회자 공동체의 영적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일깨웠다.

이후 임원 소개와 감사장 전달이 이어졌으며, 조이스 안 부에나파 시의원과 조봉남 OC한인회장이 지역 사회와 교계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임 회장에는 정찬군 목사(예심교회), 이사장에는 강문수 목사(로렐나무교회)가 소개됐고, 부이사장 손태정 목사(주성교회), 자문위원장 김상덕 목사(복음장로교회)가 함께 섬기게 됐다.

헌금 시간에는 하늘소리 에어로폰 앙상블이 「힘찬 십자가 능력 있네」를 특송으로 연주했으며, 헌금기도는 한성준 집사(OC전도회연합회 회장, 감사한인교회)가 맡았다. 모든 순서는 김용철 목사(목회자 성서연구원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번 이·취임 감사예배를 통해 OC목사회는 연합과 섬김의 사명을 확인하며, 지역 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을 다짐했다.

조셉 리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 상임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평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6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310.1800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국제비즈니스 USA 이사장
(현)남가주 교외협의회 고문 변호사
(현)제미발행기 협회 고문 변호사
(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폴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이영훈 목사 “주 안에서 하나 됨과 감사의 삶 살아야”

LA 축복 부흥성회

나성순복음교회는 28일 오후 7시 30분 교회 본당에서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를 초청해 LA축복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이영훈 목사는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며 “신앙의 핵심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안에서 머물면 영적 성장이 가로막히지만,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신다”며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전했다.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에 대해서는 “주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안에 머물 때 갈등과 아픔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만연한 편 가르기 문제를 언급하며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고 우리

는 모두 하나”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게를 언급하며 “주 안에서 봉사하지 않고 내 안에서 봉사할 때 의견 충돌과 다툼이 일어난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지만 갈등의 사례로 남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교회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2장 3절을 인용한 그는 “사람은 높아지길 원하지만, 교회 안의 다툼은 교만과 허영에서 비롯된다”며 “대접을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 됨은 성령의 역사”라며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할 때 교회와 가정, 공동체에 부흥이 임한다.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설교 후반부에서는 ‘멈춤’의 중요



이영훈 목사.

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감정이 폭발해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며 “그 순간 잠깐 멈춰 주님께 마음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예수님이 분노를 절제하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빌립보서 4장 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인

용해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명령이다. 기뻐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간혀 스스로 무너진다”며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때 우울과 놀림이 치유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울증과 불면,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언급하며 “주님께서 주 안에서 치유하신다”고 선포했다. 참된 만족과 평안은 예수 그리

스도에게서 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106세의 김형석 교수와 122세 장수 노인의 사례를 들며 “장수와 건강의 비결은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라며 “이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평안이 있을 때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성도를 붙든다”고 말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예로 들며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기쁨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전했다.

설교 마지막에는 틱 장애티를 앓던 어린이의 치유 간증을 소개했다. 그는 “감사하라는 권면 이후 지속적인 감사와 기도를 통해 오랜 증상이 사라졌다”며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목사는 “과거의 상처에 매이는 것은 어둠의 역사이지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며 “한평생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자”고 설교를 마쳤다. **토마스 맵 기자**

한인 교회 예배 시간 노린 절도 잇따라

최근 로스앤젤레스지역 한인 교회들을 노린 연쇄 절도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한 용의자가 주일 예배 시간 전후 또는 예배 도중 교회 사무실이나 방치된 가방을 노려 지갑,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 등을 훔치는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 교회 한 곳에서는 2월 1일 예배 중 용의자가 들어와 지갑을 훔쳐도주했으며, 이 안에 신분증, 카드 및, 현금이 있었다.

이미 다른 여러 한인 교회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

해졌으며, CCTV 영상과 사진을 비교한 결과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하루 만에 피해액이 4,000달러(약 5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카드 정지 및 계좌 조치를 취했으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한인 커뮤니티와 교회들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용의자 인상착의는 흑인 남성으로, 나이 30대 전후반, 키 약 6피트(약 183cm) 정도로 비교적 크고, 체형은 날씬한 편이다. 일부 교회 CCTV에는 회색 BMW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LA 지역 한인 교회들은 예배 중 사무실 무인 상태나 가방 방치가 취약점으로 지적되며, 예배 시간대 경비 강화, CCTV 추가 설치, 소지품 관리 철저 등을 당부하고 있다.

한인 교회 관계자들은 “교회가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예배 중에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서로의 소지품을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제보한 샘신 목사(샘커뮤니티교회)는 샘 신 목사는 이번 절도 피해 신고 과정의 어려

움도 호소했다. 그는 “절도 사건은 경찰서에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리포트를 하라고 안내받는데,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며 “미국에서 경찰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고 영어와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나조차도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40분 넘게 걸렸다”며,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리포트 작성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인교회 절도범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과 용의자.

아버지 밥상 교회, 뉴베리 홈리스 국제센터 개관



아버지밥상교회가 뉴베리 스프링에 홈리스 국제센터를 최근 개관했다. 이번 센터는 지난 10년간 홈리스 사역을 이어온 아버지 밥상 교회의 비전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무디 고 목사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응답으로 200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센터가 뉴베리 스프링에 세워졌다”고 말했다.

뉴베리 홈리스 국제센터는 약

90에이커의 부지에 조성됐다. 무디 고 목사는 “이곳에서 홈리스 형제들이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단순한 보호 시설이 아니라 영적 회복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아버지 밥상 교회는 뉴베리 센터를 시작으로 미국 50개 주에 50개의 홈리스 센터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뉴베리 센터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휴식처와 기도 원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제2회 미주 이단 대책 세미나

‘하나님의교회’의 미혹을 경계하라

목회자 세미나

*일시: 2026년 2월 17일(화) 오전 10시~오후 2시
*장소: 한길교회 (고광선 목사 시무)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대상: 목회자 선착순 40명
*등록: 무료, 점심 식사제공

평신도 세미나

*충현선교교회 (국윤권 목사 시무) 2026년 2월 18일 (수) 7:30PM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윤대혁 목사 시무) 2026년 2월 20일 (금) 7:30PM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목사 시무) 2026년 2월 22일 (주일) 1:00PM

주일예배집회

*LA성암교회 (김요한 목사 시무) 2026년 2월 22일(주일) 11:00AM

- 문의: 714-683-9884
- 주최: 파이널리프리국제선교회, 기독교일보
- 후원: 사랑의 빛 선교교회, 한길교회, 충현선교교회, 동양선교교회, LA성암교회



강사 : 박지일 교수
부산장신대 교수(교회사)
월간 현대종교 이사장 겸 편집장
부산성서화운동본부 이단상담소장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St. Michael's College 졸업(Ph.D)



달라스 위브릿지 컨퍼런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다(2)

[지난호 '달라스 위브릿지 컨퍼런스'에 이어서]

강 목사는 강의 서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행복 칼럼’을 쓰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그는 “성경은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한다”며 “행복은 신앙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날 목회 현장에 만연한 왜곡된 자아관을 지적했다. 강목사는 “목회자는 교회의 크기나 숫자로 평가받기 위해 부름 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며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느냐로 자신의 가치를 재단하는 순간, 목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강목사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며 ‘에클레시아’와 ‘퀴리아코스’ 개념을 소개했다. 그는 “에클레시아는 시민 공동체의 모임을 의미하며, 퀴리아코스는 주님께 속한 공동체를 뜻한다”며 “교회관이 왜곡되면 교회를 숫자와 서열로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10명이 모인 교회라도 주님의 몸이라면,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목사는 건강한 목회를 위한 자기 관리 질문도 제시했다.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정 가능한 존재로 살고 있는가, 건설적인 사람인가,

연결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회자는 개인 성장에 몰두해야 하며, 지속성과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쓰기와 독서를 자신의 행복의 원천으로 소개하며 “매일 칼럼 하나를 쓰겠다는 나와와 약속이나를 성장시켰다”고 전했다. “LA에 온 지 8년이 되었고, 앞으로 10년만 더 이렇게 산다면 삶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의 후반부에서는 기독교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목사는 “과거 문맹률이 90%가 넘던 시절, 한국 기독교가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인문학을 알아야 성경을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다”며 독서를 독려했다. “옛

날에 읽던 책을 다시 펼쳐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면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한 달에 10권, 최소한 일주일에 한 권은 읽어보라.”.

폐회예배에서 설교한 이윤영 목사(샌안토니오 한인침례교회)는 레위기 1장 9절과 마가복음 14장 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드러진 삶은 세상의 눈에 낭비처럼 보여도 결코 헛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겨울 폭풍 속에서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된 것을 언급하며, 날씨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

이목사는 아프리카 말리 지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풀어갔다. 수년간 학교와 우물, 클리닉을 세우며 섬겼던 마을이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하루아침에 폐

하가 되자, 선교사들은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선교사가 꿈속에서 번제를 드리는 환상을 보고, 자신의 모든 수고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임을 깨닫고 회복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윤영목사는 번제의 의미를 “다른 제사와 달리 번제는 제물을 끝까지 태워 재로 만드는 제사”라고 말했다. 그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자신, 곧 인생 전체를 상징하며,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아무 열매 없어 보이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여진다”고 했다. 사역의 결과나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닌, 하나님께 드러진 삶 자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자신의 부친이 시골 교

회에서 평생 목회하며 겪었던 이야기를 나눴다. “재정적 자립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한 교회가 수년간 후원을 멈추지 않았던 사례를 소개하며,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드러지는 헌신이야말로 참된 선교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상적 효율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을 언급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은 행위가 바로 복음 그 자체였다고 강조했다. 이윤영목사는 “개혁교회와 후원 사역, 목회자의 삶이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러진 향기로운 번제임을 기억하자”고 권면했다.



왼쪽부터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달라스 위브릿지 컨퍼런스 참가자들, 이윤영 목사(샌안토니오 한인침례교회)

텔로유스, ‘퀀텀 젊은 회복’ 세미나 성료

텔로유스(TeloYouth, 대표 버나드 정)가 지난 1월 17일(토) 오전 10시,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텔로유스 오피스에서 ‘퇴행에서 재생으로’를 주제로 한 ‘퀀텀 젊은 회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건강과 노화에 대한 기존의 ‘질병 관리 중심’ 패러다임을 넘어, 세포 재생을 통한 근본적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강연에 나선 티나 존슨 박사는 “미국인 약 60%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수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며 만성 질환의 ‘보이지 않는 진행성’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 성인 약 9,800만 명, 즉 3명 중



왼쪽부터 폴킴 건강수석코치, 티나 존슨 박사, 크리스 모리스 박사

1명 이상이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 3천만 명의 미국인이 만성 신장 질환 위험군에 속해 있으며, 이 역시 말기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증상이 거의 없다”며 조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존슨 박사는 이러한 질환의 공통점에 대해 “모든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세포 수준에서 퇴행이 누적되며 발생한다. 우리 몸에는 DNA에 새겨진 ‘재생 능력’이 존재하며, 나이에 상관없이 신체는 스스로 회복하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퇴행

이 재생을 압도할 때 질병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텔로유스의 ‘퀀텀 젊은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기존의 증상 관리나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 재생 중심의 접근을 통해 120세 이상까지 건강한 삶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존슨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61세 당시 혈액 검사에서 염증, 영양, 미토콘드리아 건강 수치가 모두 최적 상태였고, 생물학적 나이는 48세로 측정됐다”고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어 그는 프로그램의 핵심 원리로 “자연에서 추출한 ‘지능형 영양소’를 통해 젊은 시절 풍부했던 신호 분자들을 다시 공급함으로써 줄기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혈류를 통해 필요한 부위로 이동해 재생을 활성화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줄기세포

는 30세에 이미 약 80%가 감소하고, 80세가 되면 99.5% 이상 줄어든다”며 이것이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임상 연구 결과도 함께 제시됐다. 존슨 박사는 “해당 회복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최대 50%까지 낮추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우울감 개선, 운동 능력과 근력 향상, 인지 기능 46% 개선, 줄기세포 방출 377% 증가라는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존슨 박사는 “우리는 증상을 덮는 방식이 아니라, 세포 수준의 근본 치유를 추구한다”며 “이 모든 과정을 12개월 ‘퀀텀 젊은 회복 프로그램’으로 통합했을 때, 실제적인 회복과 놀라운 재생을 경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의: 714-732-8477(폴킴 건강 수석코치)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주)대원 전자동 시설로 만든 왕김밥 4종

새우튀김 김밥/매운 오징어 김밥/참치 김밥/야채 김밥

교회 스페셜 10pcs 한줄 **\$4.50**

무료 딜리버리 60줄 이상 주문가격

주문문의 949-330-9033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플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OC 213.798.2200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하는

설맞이

떡국 떡국 떡국

나누는 날

작은 떡 한 봉지에 새해 인사와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LA 지역

일시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 9:30 AM

장소

아스티바 헬스 코리아타운
올림픽 갤러리아 3층
3250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06

대상

선착순 500명 시니어 한정

OC 지역

일시

2026년 2월 17일
화요일 | 9:30 AM

장소

센터메디컬그룹 직영 클리닉
가든그로브 지점
12372 Garden Grove Blvd, #B
Garden Grove, CA 92843

대상

선착순 250명 시니어 한정

 **센터메디컬그룹**

문의연락 888-847-3098 월 - 금 | 9:00 AM - 5:00 PM

정부, 차금법 이어 민법 개정안도 교계 의견 조화… ‘신중 모드’

한교총·한기총·한교연 ‘반대’ 입장 회신, NCKK는 ‘궁정·아쉬움’ 동시 표명

정부가 최근 교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주요 연합기관들에 의견을 요청했다. 얼마 전 ‘차별금지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 해당 법안들이 종교와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교회 등 비영리 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시 설립 허가 취소, 해산과 재산 국고 귀속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한교총 “종교의 자유·정교분리 원칙 침해 소지”**

이에 대해 교계 주요 연합기관들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한교총)은 해당 개정안이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민법은 사적 자치와 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한 사인 간 기본법”이라며 “비영리 법인에 대한 감독 강화, 해산, 재산 국고 귀속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민법에 포괄적으로 담는 것은 현행 민법 체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를 범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특정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 민법 개정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한기총 “종교의 자유·자유민주주의 질서 훼손 우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기총은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 권력이 종교 영역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자기모순적 입법”이라며, 종교법인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제도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

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종교단체의 문제 사례를 근거로 전체 종교법인을 포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며, 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가 개입은 민주사회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 **한교연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정면 배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 이하 한교연)은 현행 민법 체계 만으로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교연은 “민법 제37조와 제38조, 제80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 취소와 잔여재산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포괄 규제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종교단체를 해산하고 종교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며, 이는 정치권력이 종교 재산에 개입하려는 시도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 **NCKK “법적 절차 설정 높이 평가하나 아쉬움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박승렬 목사, 이하 NCKK)는 다른 연합기관들과는 다소 다른 결을 보였다. NCKK는 개정안이 법인 감독 과정에서 일정한 법적 절차를 설정하려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행정관청의 자의적 법집행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과 제재는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왼쪽부터) 한교총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 천환 목사, NCKK 총무 박승렬 목사

박영선 목사 ‘마지막 설교’… “손가락질 아닌 끌어안는 신앙으로”

남포교회 원로인 박영선 목사가 주일에 배 강단에서 사실상 마지막 설교를 전하며, 신앙의 성숙과 용서, 그리고 십자가 신앙의 본질을 강조했다. 박 목사는 1일 주일예배에서 욥기 42장을 중심으로 설교하며,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겪는 상처에 대한 심경도 함께 밝혔다.

설교에 앞서 박 목사는 예배에 모인 성도들에게 남다른 당부를 전했다. 그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기에, 가볍게 듣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함께해 달라”며 “교회

안팎에서 제 이름을 둘러싼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오히려 오해를 키우는 상황이 되면서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들로 예배의 자리가 무거워지고, 교회를 떠나려는 이들에게 생기는 현실을 보며 더 이상 짐을 나누어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인 한 사람의 문제로 공동체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교에서 박 목사는 욥기의 결론부를 짚으며,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다음 단계’를 언급했다. 그는 “욥이 고백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나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더 많이 알게 됐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귀로 듣던 신앙을 넘어, 한순간에 전체를 직면하게 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목사. ©남포교회 유튜브 캡처

박 목사는 “욥은 당대에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설

명할 수 없는 고난에 던져졌다”며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공감보다 판단을 앞세웠고, 욥은 그 시선 앞에서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 꾸짖으신 대상은 욥이 아니라, 욥을 재단하던 친구들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나님은 욥을 놀러버리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 부르셨다”며 “그를 심문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내가 말할 테니 너는 들으라’며 허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아버지로 등장하신다”고 풀어냈다.

박 목사는 “인류는 늘 정의를 외치며 부패한 권력을 뒤집어 왔지만, 그 끝은 또 다른 폭력으로 귀결되기 일쑤였다”며 “힘으로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드러내신다”고 말했다.

욥기 42장에 이르러 욥이 침묵과 항복으로 나아가는 장면에 대해 “욥은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답을 소유하려 하지 않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소원조차 분명히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가르쳐 달라’고

묻는 자리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목사는 “친구들은 규칙과 권위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상대로 질문했다”며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응답은 ‘용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분노를 정리한 뒤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분노를 내려놓으라는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서해라. 용서는 틀린 사람 정죄해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틀린 사람 용서하고 화합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결론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설교 후반부에서 요한복음 14장과 3장, 17장을 언급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과 대상으로 삼으시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 “사랑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믿으면 보상을 주겠다는 조건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결단을 선포한 문장”이라고 해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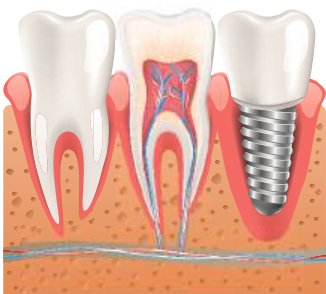
노형구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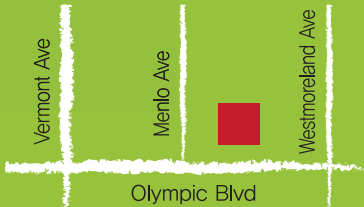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한번의 선택”

부모님께 맞는 의사부터
부모님이 찾는 병원까지

SMG에
있습니다

홍보대사 고두심



SMG 연계 병원

UCLA, 시더스-사이나이, 할리우드 장로병원, 세인트 주드, 세인트 조셉, 애너하임 리저널, PIH 굿사마리탄



SMG 연계 보험사

얼라인먼트, 앤섬, 블루실드, 클레버케어, 휴매나, 헬스넷, 몰리나/센트럴헬스, 스캔, UCLA 어드벤처지, 유나이티드, 웰케어

서울메디칼그룹이 5,500명의 의사와
우수한 병원 네트워크와 함께
당신의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문의전화 800.611.9862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카카오톡채널에
방문하세요!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벤처지/웰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위 브릿지 컨퍼런스 '목회의 유리 천장 깨기'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미국 텍사스 플라워마운드교회(담임 최승민 목사)에서 '달라스 2026 위 브릿지 컨퍼런스(We Bridge Conference)'가 개최됐다.

“목회를 안 하고 싶었다… 가난할 용기가 없었기에”

이번 컨퍼런스의 마지막 강연이자 여섯번째 강의를 맡은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는 '목회의 유리천장 깨기'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가난해질 용기가 없었서 목회를 안 하고 싶었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제가 다니던 3-4백명 다니던 교회, 130년 정도된 시골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강직하신 분인지, '성도들은 냉골에서 자는데 목사가 따뜻하게 군복을 지필 수 없다'며 방에 불을 때지 않으시고, 오다가 햇빛은 사람이 있으면 옷을 벗어주고, 일감을 구하지 못한 지게꾼을 보면 주머니를 털어 국밥을 사주셨다. 가난할 용기가 없어서 목사가 되기 싫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재직화를 할 때면, 재직들에게 새로운 목사님을 구하라 재촉했다. 목회를 그만두고 공부할 생각이었다. 한 번은 안수집사님이 그를 교회 뒤로 끌고가서서, “그만둘 거면, 아예 그만두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길 목사는 자기가 성도들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70세 은퇴까지,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김영길 목사

소명의식, 유리천장 깨기, 성도와 의 관계, 기도

이날 그는 네 가지 1) 소명의식, 2) 유리 천장 깨기, 3)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4)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다. 김 목사는 첫번째 토픽, 소명과 관련해, 작은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냈다. “교회를 시작하고 2년 가까이 되기까지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목사 부인이 되는 게 소원이라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서 목사가 되었는데, 매우 어려웠다.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수 없을 정도로 아내 눈물샘을 마르게 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아파트에 갈 때까지 아내에게 투덜거렸다. 1년 반쯤 지났을 때, 아내가 정색하더니,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면, 자원입대 한거예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는 저를 길러주신 그 작은 어머니 이시다. 얼굴에 구리무 하나 안 바르시고 구릿빛에 머리털은 다 빠지신 분. 제가 11학년 후반기에, 동네 할머니 한분이 저를 부르셨다. '영길아, 너 앞으로 뭐할래?, 네 작은 어머니가 아무 것도 없는 집안에 시집 와서 일군 이 재산을 너 줄거 같으나,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 줬으면 고마운줄 알아야지.'라고 하셨다.”

“한 번도 해본적 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야, '자기 앞가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작은 어머니가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11월 말 아주 맑고 건조하고 뜨거운 늦 가을, 추수도 다 끝났을 때,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작은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다. '서울로 신학대학 가거라. 나는 너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너를 세계적인 종이 되라고 기도해왔다.'고 하셨다. 그분의 도움으로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소명의 확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셨다.”

또한 목회자의 핵심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강조하며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목회의 유리천장 깨기

피터 와그너 박사의 교회 성장 이론-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마다 장벽이 다르다

김 목사는 '목회의 유리천장 깨기'를 주제로 교회 성장과 목회자의 리더십 한계를 진단했다. 그는 피터 와그너 박사의 교회 성장 이론을 인용하며 교회가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규모에서 각각 다른 장벽을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명 장벽은 위임과 신뢰의 문제, 500명 장벽은 영성, 1000명 장벽은 행정 능력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또한 교회 분열의 주요 원인으로 성도들이 기존의 친밀한 공동체 분위기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꼽으며, 목회자가 성도들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인교회 개척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

나는 70명 전후 분열 현상에 대해 “성도들이 공동체의 확장을 위해 '다정한 친밀감'을 내려놓는 위험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폴대 신학'을 제시했다. “텐트를 넓히려면 중앙 기둥(폴대)을 세워야 한다. 그 폴대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구조다. 수평적 관계 중심의 교회는 갈등으로 분열되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는 확장된다.”

설교 준비의 전환: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김영길 목사는 설교 준비 방식의 전환도 강조했다. “설교는 자료 수집이 아니라 기도의 산물이어야 한다. 매주 하나님께 '이번 주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라고 묻고, 그 한 문장을 붙들고 일주일을 묵상했다. 그렇게 준비된 말씀은 자연히 공동체를 살리는 힘을 갖는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회복

세 번째 핵심 주제로는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가 다뤄졌다. 목회자는 공동체의 중심에서 권위자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이며, 성도는 동역자라는 관점이 강조됐다. 또한 “목회자가 사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사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실제 사례를 통해, 가정의 질서가 곧 교회의 질서로 연결된다는 원칙도 제시됐다.

주디 한 기자

그래미 3관왕 젤리 롤, 수상 무대에서 신앙 고백 “예수는 모두의 구주”

그래미 어워즈에서 3관왕을 차지한 가수 젤리 롤(Jelly Roll)이 수상 소감 무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복음을 전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생중계로 방송된 시상식 무대에서 “누구나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젤리 롤은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

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에서 2024년 앨범 'Beautifully Broken'으로 '베스트 컨템퍼러리 컨트리 앨범'을 수상했다. 또한 브랜든레이크(Brandon Lake)와 함께한 'Hard Fought Hallelujah'로 '베스트 컨템퍼러리 크리스천 음악 퍼포먼스/송', 샤부지(Shaboozey)와의 협업곡 'Amen'으로 '베스트 컨트리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을 각각 수상했다. 베스트 컨템퍼러리 컨트리 앨범상을 받은 뒤 무대에 오른 그는 자신의 삶이 변화된 이유로 예수와 아내 알리사 디포드(Alisa DeFord)를 언급했다. 디포드는 과거 온리팬스(OnlyFans) 활동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젤리 롤은 무대에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 꼭 전하

고 싶다”며 “예수님, 당신의 음성을 듣고 있고 순종하고 있다. 주님 없이는 내 삶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죽거나 감옥에 있었을 것이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의 삶을 돌아보며 “완전히 무너진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이 앨범을 만들었다. 희망이 없다고 느꼈고, 가장 어두운 생각을 하던 날들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주머니 크기의 성경을 들어보이며 그는 “내 인생의 어느 순간, 내게 있던 것은 이만한 성경과 같은 크기의 라디오, 그리고 6x8피트 감방뿐이었다”며 “

음악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수님은 모두를 위한 분이다. 특정 정치 진영이나 음악 산업의 소유가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년 그래미 시상식은 약 1만 2천 명의 현장 참석자와 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에게 생중계됐다. 공동 수상자인 브랜든레이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Hard Fought Hallelujah”가 그래미를 수상했다. 예수님께 감사드리다”며 젤리 롤과 시상식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젤리 롤의 발언을 시상식의 “유일한 밝은 장면”이라고 평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분명한 간증이었다. 전 세계 앞에서 용기 있게 신앙을 고백했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젤리 롤(Jelly Roll).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중언, 김한호, 류종길, 민종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호,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승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킴

■발행인

이인규

■편집국장

맹창현

■고문번호사

정찬용

■지사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랜트,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213) 739 - 0403

■E-mail

chdailya@gmail.com

■주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이사장

폴킴

2025

NICHE

BEST SCHOOLS

TRUSTED SCHOOL IN TOWN

LEARN MORE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英 성경 판매 134% 급증 젊은층 영적 관심

영국에서 성경 판매가 급증하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 영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선교학자이자 선교단체 ‘호프 투게더(Hope Together)’의 대표인 레이첼 조던-울프는 최근 영국 교회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던 젊은 층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영국 내 성경 판매는 전년 대비 134% 증가해 총 630만 파운드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치는 올해 초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조던-울프 대표는 이러한 흐름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교회의 쇠퇴 전망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랫동안 우리는 쇠퇴의 서사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성장과 소망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사고와 사역 방식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진단은 최근 발표된 ‘브리튼의 신앙(Belief in Britain)’ 보고서의 작성자인 크리스토퍼 개슨의 분석과도 맥을 같이한다. 폴폴(OnePoll)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적 개방성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Z세대 응답자의 64%가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답해, 베이비붐 세대의 35%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중년층에서는 무신론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54%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혀, 기독교 인구 비율이 절반 이하로 집계됐던 2021년 인구조사 수치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슨은 “영국이 점점 더 무신론 국가가 되고 있다는 기존 가정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연구자들은 최근 조사 결과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퓨리서치센터는 최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영

국 내 신앙 부흥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여러 조사들이 무작위 표본이 아닌 자발적 참여 방식(opt-in)에 의존하고 있어 방법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판은 특히 성서공회가 의뢰해 발표한 2025년 보고서 ‘조용한 부흥(The Quiet Revival)’을 겨냥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8~34세 사이에서 교회 출석과 신앙 고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성서공회 측은 퓨리서치센터의 비판에 대해 연구 방법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조던-울프 대표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교회 쇠퇴론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5년 사이 신앙은 젊은 세대에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영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지 않다. 분명히 쇠퇴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회들의 실제적인 현장 활동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호프 투게더는 지난해 ‘그레이트 가스펠 기브어웨이(Great Gospel Giveaway)’ 캠페인을 통해 영국 전역에 14만 부 이상의 복음서를 무료로 배포했다. 이 캠페인은 변화가, 카페, 학교, 푸드뱅크,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 공공장소에 복음서를 비치해 비용 부담과 심리적 장벽 없이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도 재개될 예정이다.

조던-울프 대표는 “복음서, 즉 예수의 삶 이야기가 신앙 탐구의 가장 좋은 출발점”이라며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가는 여정을 최대한 쉽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독교 서점가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한 기독교 서점 관계자들은 온라인 검색이나 교회 방문 시도 이후 성경을 찾는 젊은 방문객이 늘고 있으며, 무엇을 찾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강한 필요를 느낀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英 기독교단체 “출산 직전 낙태 허용 우려” 상원 의원에 의견 전달 촉구



©Unsplash/Maria Oswalt

영국의 기독교 옹호 단체 케어(CARE)가 사실상 출산 직전까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위험한” 입법을 막기 위해 상원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기도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향후 수주간 범죄 및 치안 법안(Crime and Policing Bill)을 놓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에서 낙태와 관련된 모든 형사 처벌을 제거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비판자들은 본래 거리 안전 강화와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낙태 허용 한계를 다루는 입법 논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형사 처벌을 전면적으로 없앨 경우, 현행 범상 24주로 제한된 낙태 시한을 넘겨 스스로 낙태를 시도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들은 과거 불법 시술의 위험성을 경고해 온 낙태 찬성 진영이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를 확대해 비공식적 시술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기간 도입된 ‘후편 처방 낙태약(pills by post)’ 제도 역시 의료 감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 왔다. 해당 제도는 대면 진료 없이 원격으로 낙태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

한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임신 말기에 낙태약을 복용해 태아가 사망하고 산모 역시 위험에 처했으며,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한 남성이 임신한 여자친구의 음료에 몰래 낙태약을 넣어 유산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해 여성은 이후 임신이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케어(CARE)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영향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하원이 해당 수정안을 단 46분간의 토론 끝에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논쟁성이 큰 사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케어(CARE)는 낙태약 처방 시 대면 의료 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복원하는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강요에 의한 낙태 시도나 명백한 심리적 위기 상태에 놓인 여성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캐롤라인 앤셀 케어(CARE) 옹호 및 정책 책임자는 지지자들에게 해당 사안을 심의하는 상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위험한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들을 대변하고, 연약한 이들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국에 자비를 베푸시길 계속 기도하자”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자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부터 임자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i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참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세울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N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NC 중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NC 소년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ON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요영양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부,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영양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서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욱**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3435 Wilshire Blvd. # 570(SF), L.A. CA 90010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일찬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일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생교회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종교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반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동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들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전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새벽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영아 유치부, 원아동부, 종교동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일새벽부흥회 토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최원일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무관심주의, 기독교 변증이 마주한 새로운 장벽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조나단 파커의 기고글인 ‘아파테이즘(Apatheism, 무관심주의): 무신론도 불가지론도 아닌, 기독교 신앙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Apatheism: Not atheism, agnosticism but another challenge to Christian faith)을 최근 게재했다.

조나단 파커는 버지니아주 워싱턴대학교에서 기독교와 문화 분야의 겸임 교수이며, 컬럼비아 국제대학교의 겸임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또한 그는 버지니아 북부에 위치한 다민족 교회인 예루살렘 침례교회의 담임목사로서도 섬기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다른 신념 체계들과 달리, 아파테이즘(apatheism)은 하나의 정식 세계관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을 자체에 무관심한 태도 혹은 자세에 가깝다. 아파테이즘은 기독교 변증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관점인데,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고려하는 데 있어 매우 흔한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저널리스트이자 저자인 조너선 라우크(Jonathan Rauch)는 『애틀랜틱(The Atlantic)』에 실린 널리 인용되는 글 「그대로 두라(Let It Be)」에서 자신을 아파테이스트(무관심론자)라고 밝힌다. 그는 아파테이즘을 “자신의 종교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는 성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 쓰지 않으려는 성향”으로 정의한다. 라우크는 아파테이즘을 단순한 ‘게으른 무기력’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사회학적 성취로 이해한다. 그는 2001년 9·11 테러 이후의 맥락에서 글을 쓰며, 역사적으로 종교적 열정이 분열과 폭력을 낳아 왔음을 지적하고, 종교적 열정이 길들여진 현상을 퇴보가 아니라 성취로 평가한다. 철학자 트레버 헤드버그(Trevor Hedberg)와 조던 휴자레비치(Jordan Huzarevich) 역시 라우크의 견해에 공감한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파테이즘은 유신론, 무신론, 불가지론과 구별된다. 유신론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불가지론자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고 믿는다. 반면 아파테이스트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헤드버그와 휴자레비치는 이른바 ‘존재 질문(existence questions, EQs)’이 왜 중요하다고 여겨져 왔는지를 설명하는 여섯 가지 일반적인 이유를 검토한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혹은 불신이 사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질문들을 진지하게 다룰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질문들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 각각의 반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천적으로 중요하다는 서로 다른 이유를 제시한다. 그러나 다섯 가지 반론은 모두 실패한다. 여섯 번째 반론,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후의 운명과 관련해 실천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주장은 더 유망해 보이지만, 여전히 중대한 난점에 부딪힌다. 이 반론의 성공 여부가 논쟁적인 만큼, 실천적 아파테이즘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지 역시 논쟁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 관점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헤드버그와 휴자레비치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만일 우리가 존재 질문들에 대해 내리는 답이 실천적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러한 질문들은 철학적 관심을 덜 받을 만하며, 그에 관한 논쟁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아니므로 좀 더 가벼운 태도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결론짓는다.

그렇다면 아파테이스트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 변증에는 어떤 필요와 장벽이 존재하는가?

아파테이즘에 대해 연구해 온 목회자이자 학자인 카일 베시어스(Kyle Beshears)는 오늘날의 문화적 환경 자체가 이러한 신앙 태도의 확산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네 가지 상호연관된 장벽을 제시한다. 첫째, 논쟁화된 신념과 세계화, 둘째, 하나님 없는 실존적 안정감, 셋째, 산만함, 넷째, 자율성이다.



조나단 파커. ©Christian Post

첫째, 베시어스는 찰스 테일러, 제임스 K. A. 스미스, 앨런 노블과 같은 사상가들을 따라, 세계화의 심화와 종교적 신념 및 문화적 다양성이 일상적으로 교차하는 현대 사회에서 신념이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피터 버거(Peter Berger)가 말한 ‘개연성 구조(plausibility structure)’의 압박을 떠올리게 한다. 매우 상이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접하다 보니, 기독교를 유일한 참된 신앙으로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둘째, 과학의 발전, 세속주의의 확산, 그리고 물질적 풍요와 기술의 발달은 과거 역사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실존적 안정감을 형성했다. 찰스 테일러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500년 동안 인간은 하나님이 세계에 개입한다고 믿었던 ‘마법에 걸린 세계(en-chanted world)’에서 벗어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의존 없이도 삶을 이해하려는 ‘내재적 틀(immanent frame)’로 중심축을 이동시켜 왔다. 베시어스는 이렇게 덧붙인다. “사회가 스스로를 안전하고 잘 돌봄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하나님을 덜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동기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덜 관련 있는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베시어스에 따르면, 아파테이스트들이 공유하는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 없는 실존적 안정감”이다.

셋째, 현대 사회는 자족적일 뿐 아니라 점점 더 산만해지고 있다. 베시어스는 앨런 노블의 연구를 인용하며, “우리 문화의 지속적인 산만함이 존재와 진리에 대한 가장 깊고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죽음, 아름다움, 불안과 같이 복음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요소들은, 여덟 시간짜리 몰아보기 시청 한 번이면 쉽게 무뎌진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크고 가장 어려운 질문들을 묻는 일을 손쉽게 회피한다.” 이러한 ‘논쟁성, 다양성, 인락함, 산만함’의 토양 속에서 아파테이즘은 단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한다.

넷째이자 마지막으로, 베시어스는 개인적 자율성의 최우선성이 아파테이즘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파테이즘이 존재하는 핵심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신경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 성찰은 필연적으로 삶의 방식과 정체성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데,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자율성을 지켜낸다는 것이다. 이는 프랜시스 웨퍼가 말한 ‘개인적 평안과 풍요의 우상’을 떠올리게 한다. 웨퍼에 따르면, 개인적 평안이란 “내 생애 동안 내 삶의 패턴이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며, 풍요란 “끝없이 증가하는 번영, 곧 물건과 또 다른 물건으로 가득 찬 삶”이다. 이들이 절제 없이 추구될 때, 그리스도의 주권과는 양립할 수 없다.

이 네 가지 장애물인 논쟁화된 신념과 세계화, 하나님 없는 실존적 안정감, 산만함, 그리고 자율성은 아파테이스트를 향한 변증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대상이다.

아파테이즘에 대한 예비적 평가

아파테이즘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관찰점이 있다. 첫째, 아파테이즘은 체계화된 신념 체계는 아니지만, 분명 하나의 신념이다. 베시어스의 말처럼, 아파테이스트에게 왜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지 물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관련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그러한 판단이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던질 가치조차 없다고 여긴다는 점이다.

최승연 기자 [다음호에 이어서 계속]

일터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흔적은 있는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존 가마데스의 기고글인 ‘직장에서의 신앙에 대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질문 하나’(When 2026 is uncertain, remember that God is not)를 최근 게재했다.

존 가마데스(John Gamades)는 OrangeBall Creative의 사업가이자 리더, 저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CBMC 신뢰받는 전문가 포럼(Trusted Advisor Forum) 회원으로서 자신의 신앙 성숙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른 리더들이 정직과 진실성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돕는 데 헌신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요약.

가끔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속도를 늦추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 말이다. 지금 던지려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다.

만약 어떤 고객이나 동료가 당신의 일터에서의 삶을 관찰한다면 당신의 결정, 인간관계, 압박 속에서의 태도까지 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영역은 완전히 보이지 않을까?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편인가, 아니면 숨겨두는 편인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이 주제가 얼마나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괜히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잖아?” 또 동시에, “내 기독교 신앙은 주일에만 지키는 게 맞지, 평일 한가운데까지 끌어들이는 건 아닌 것 같아.” 필자 역시 오랜 시간 이 씨름 속에 있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과, 직장 문화 안에서 ‘안전하고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왔다.

그 결과, 오랜 기간 동안 필자의 일터에는 신앙의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만약 법정에 섰다면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받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일터에 신앙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드러나는 증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들을 알아보는 방식이 신앙을 얼마나 크게 외치는가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그 증거가 된다고 하셨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존 가마데스(John Gamades) ©Christian Post

알리라” (요한복음 13:35)

우리가 신앙에 대해 말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행동은 이미 신앙을 말하고 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압박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신앙이 드러난다.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마찬가지다. 바울은 우리의 ‘일’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23)

정직함과 겸손함, 그리고 탁월함으로 일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본다. 당장 그것을 신앙과 연결 짓지는 않더라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다름이 훗날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지는 문이 된다. 필자의 친구 돈 호퍼트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우리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말하는 방식에 드러나는 증거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혹은 무너진다. 야고보는 혀의 힘에 대해 단호하게 말한다: “혀는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야고보서 3:5) 스트레스 속에서, 갈등 가운데서,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쉽게 비판하고, 불평하고, 헐뜯는가? 아니면 상황이 어려울수록 인내와 절제, 은혜가 담긴 말을 선택하는가? 바울은 우리의 말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4:6) 이는 진리를 피하라는 뜻도, 늘 눈치만 보라는 뜻도 아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걸맞게 신중하고 절제된 말을 하라는 뜻이다. 때로는 주변 대화에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이 더 쉬운 길이지만, 그 유혹을 거부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최승연 기자

성경 구절 트윗으로 기소된 핀란드 의원, 美 의회에서 표현의 자유 증언

핀란드 국회의원 파이비 라사넨(Päivi Räsänen)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유럽 내 표현 규제 확대 문제를 주제로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사넨 의원은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레이번 하원 오피스 빌딩에서 열리는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청문회는 ‘유럽의 표현과 혁신에 대한 위협: 파트 II(Europe’s Threat to Speech and Innovation: Part II)’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유럽연합(EU)과 각 회원국의 표현 규제 법제가 미국의 혁신과 민주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증언할 예정인 인사로는 국제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 인터넷 서널 소속 법률 전문가 로칸 프라이스(Lorcán Price)가 포함됐다. 그는 유럽의 표현 규제가 국경을 넘어 적용될 가능성과, 이러한 규제가 미국의 플랫폼 운영과 법적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경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라사넨 의원 사건은 지난 2019년 그가 로마서 1장 24~27절을 인용하며 핀란드 복음루터교회가 성소수자(LGBT) 프라이드 행사에 참여한 것을 비판하는 글을



파이비 라사넨 의원. © ADF

트위터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졌고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며, 그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선동 혐의로 세 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다. 해당 혐의는 핀란드의 혐오표현 관련 법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핀란드 대법원은 2025년 10월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하급심 법원은 라사넨 의원과 그의 2004년 저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를 출판한 루티고 주교 유하나 포홀라(Juhana Pohjola)에 대해 두 차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라사넨 의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핀란드 내무장관을 지냈다. 검찰은 문제의 트윗과 팸플릿, 그리고 라디오 인터뷰 발언 등 세 가지 표현 행위를 근거로 기소를 진행했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אי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광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9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물레슬)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영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야생예배 오후 7:30 한여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침례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교우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 동요로운 삶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목요 3,3,3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10:30 목요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u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우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목)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oj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세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k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elcollision@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스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초강력 정력제 \$70**

배에는 수반제거와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당분간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마의 정성이 한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 설날 큰 잔치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회장 이현옥, 이하 시니어 센터)는 2월 12일(목) 오전 11시에 설날 큰 잔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재외동포청, KACF, KAF, open bank, LA kings, 서울 메디칼그룹, 박대감네, Sans Souci, 한국인삼공사, Eco Houseware, Kowin 후원으로 열린다.

설날은 추석과 함께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명절이다. 설날을 맞아 한인타운 어르신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시니어센터는 한국무용(지도 고수희교수), 장구(지도 최혜련교수), 하모니카(지휘 김은영교수), 합창(지휘 에스더김교수), 피아노(지도 박인선교수) 등 공연을 준비했다. 참가한 300명(사전 배포 초대권 소지자에 한 함)에게 맛있는 설날 잔치음식을 무료로 대접한다.

또, 참가자 모두에게 쌀 한 포와, 정관장 제품, 생활용바지, 스넥과자 등 푸짐한 선물이 제공된다. 이현옥 회장은 “설날은 우리 어르신들이 절 받으시는 날”이라며 “이번 잔치가 시니어센터는 물론 LA 한인타운 모두에게 새해 새 희망을 선사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날 큰 잔치
일시: 2/12(금) 11시
장소: 시니어센터 2층 강당
965 S. Normandie Ave, #200, L.A, CA 90006
문의: (213) 387-7733



→ 1면 기사 <AI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제는 이러한 영향력이 인간 교사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AI 개발자들에게 신학적 전제와 데이터 출처의 투명한 공개, 다양한 신학 전통을 반영한 설계, 신학자들과의 협업을 권고하고, 사용자들에게도 AI가 어떻게 답변을 생성하는지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읽는 AI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AI는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 다만 가장 많이 학습된 신학적 목소리를 재생산할 뿐”이라고 했다.

성서공회 디지털 전략 담당 토비 베레스포드(Toby Beresford)는 “온라인 세계는 디지털 대륙이다. 이미 이 공간에서 대규모 영적 형성이 이뤄지고 있다”며 “걸려 있는 것은 수십억 영혼의 신학적 형성”이라고 강조했다.

헝가리 출신의 성서신학자 졸탄 슈와브(Zoltán Schwáb) 박사는 AI 접근의 용이성이 성경 해석의 형성 과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인 성서 연구는 시간과 맥락,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AI는 즉각적인 답을 제공하기 때문에 깊은 이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슈와브 박사는 “교회가 사람들이 AI를 어떻게 사용할지, 혹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특정 습관과 규율을 기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AI 도구는 사용자가 더 다양한 해석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도, 자신이 속한 전통 내에서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챗봇이 교사나 멘토처럼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책임이 커지고, 신학적 균형이 부족할 경우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단신

▶ 2/6(금) 나무엔 콘서트

웨스트힐 장로교회(오명찬 목사)는 오는 2월 6일(금) 오후 7시 30분에 본관 1층 예배실에서 CGNTV ‘작은 숲 콘서트’ 진행자인 나무엔 콘서트를 연다.

교회 주소: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전화: 818 884 2391

▶ 한마음선교회 이전 감사예배

WPC LA 중앙노회 소속 한마음선교회(김경식 목사)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교회를 이전하고 2월 8일(주일) 오후 4시에 교회이전 감사예배를 드린다.

일시: 2월 8일 (주일) 오후 4시

주소: 2426 W 8th St, Unit 217, LA CA 90057

김경식 목사 (213-909-3579)

▶ 기쁜우리교회 9주년 감사예배

글렌데일에 위치한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가 창립 9주년을 맞아 2월 8일(주일) 감사예배를 드린다. 예배 시 창립기념 감사헌금을 드리며, 2부 예배 시 임직식을 거행한다.

일시: 2월 8일 (주일)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문의: 818 - 662 - 0400

▶ 세리토스선교교회 창립 41주년 정성욱 목사 초청

세리토스선교교회(방상용 목사)는 2월 15일(주일)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는다.

정성욱 목사(덴버신학교 교수)가 메시지를 전하며, 지명현 목사가 15일(주일)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찬양 부흥회를 이끈다.

▶ 주님의영광교회 부흥회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는 2월 6일(금)부터 8일(주일)까지 황성은 목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개최한다. 2월 6일(금)과 7일(토) 오후 7시 30분, 2월 8일(주일) 1·2·3부 예배

▶ 글로벌 비전 커뮤니티 한의 치료

글로벌 비전 커뮤니티(Global Vision Community)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통증 완화를 돕기 위해 무료 및 적정 비용의 침술·한의 치료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장소는 1442 Irvine Blvd. STE 108 Tustin, CA 92780.

매주 토 오전 11시 ~ 오후 3시

격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

문의: 949-667-0264 714-393-4595(문자)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25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213-798-2200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새라김 대표

헌법적 승리를 뒤집으려는 세력들: 캘리포니아 교사들을 위한 영적 전쟁



새라 김 대표
TVNEXT.org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두 교사들의 미라벨리 대 올슨(Mirabelli vs Olson) 법정케이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급하게 기도 요청합니다. 지난 12월에 Mirabelli vs Olson 케이스에서 캘리포니아의 “학부모에게 성별 비밀 유지” 정책은 “위헌이며 영구적으로 금지”하라는 기본 판결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이 나오자마자, 캘리포니아 롬 본타 법무부장관이 급하게 그 판결을 뒤집고자 올린 소송요청은 매우 빨리 제 9회 순회항소법원에 의해 받아들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HQ를 둔 제 9회 연방 항소법원은 지금까지 대부분 반기독교 정책들을 선호하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미라벨리 대 올슨’ 사건 소송 과정:

1. 신앙을 선택하고 거짓을 거부한 교사들의 용기와 승리: 2023년, 두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해당 학군의 “학부모 배제” 학부모에게 “성별 비밀 유지 정책” 통보를 받고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의 선택은 캘리포니아 정부에 순종하지 않은 엄청난 댓가(벌칙, 벌금, 해고 등등)를 감수하는 것이지만, 두 교사들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하수인이 되어 학부모를 속이기를 거부하고 저희 단체와도 오랜 동역을 해오고 있는 토마스 모어 협회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의 로저 T. 베니테즈 판사는 주정부의 소위 ‘성별 비밀, 학부모 배제 정책-Parental Exclusion Policies’이 위헌이며 “영구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오랫동안 민주당의원들에 의해 통과된 악법들에 의해 학교 관계자들이 미성년 학생의 성 정체성 또는 ‘사회적 전환 Social Transition’을 학부모에게 숨기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합법화 시키고 매우 활발하게 실행해왔습니다.
2. 교사들의 승리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급한 맞소송: CA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마자, 교사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법무부장관 Rob Bonta를 비롯한 주정부 민주당 소속 리더대표들이 급히 제 9회 항소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고,

- 2026년 1월에, 제9순회항소 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측의 “성별 비밀 유지”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3. 다음은 두 판결들의 요점과 현재 상황입니다. CA연방 지방법원의 판결 요점: 법원은 공립학교에서 적용되는 캘리포니아주의 성별 비밀 유지 제도가 다음의 기본 권리들을 침해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 부모의 권리 침해: 법원은 자녀의 양육 및 보호에 관한 결정에 대한 간섭을 근거로, 부모가 자녀의 성적정체성을 포함한 교육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는 것이 기본적인법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교사 권리 침해: 또한 교사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를 가지며, 학생의 성별 표현에 대해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막는 정책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함.
 - 영구적 금지 명령: 이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 관계자들에게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려, 교사들이 학부모를 오도하거나 학생의 성별 정체성을 은폐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함.
- 제 9회 항소법원 판결 요점:**
- 집행 일시 정지 승인: 제9순회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학부모에게 ‘성별 비밀 유지- 학부모 배제’ 정책을 차단했던 CA 연방지방법원의 영구적 금지 명령을 일시 중

단해 달라는 해당 캘리포니아 주정부(민주당 대표 리더들)가 요청한 것을 승인함. 즉, 악법편에 섰다는 의미.

- 집행 정지 사유는: 캘리 연방 지방법원이 올바르게 내린 판결이 “혼란 및 혼동을 줄수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비상식적인 억지 우려를 제기하며 다시 법적 리뷰가 필요하다는 이유.

현재 상황 및 기도제목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미라벨리 vs 올슨”에서 “미라벨리 vs 본타(법무부장관)”, 그리고 “미라벨리 vs주정부 공무원(State officials)”으로 계속 진행 중이며, 제9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항소는 Pending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엡 6:12)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느니라.” (고전 13:6)

악법이 성행함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역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주어진 헌법적 승리가 계속 유지되도록, 악법을 “선”이라고 정당화 시키는 정치인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참조하세요.

진유철 칼럼

“너는 복이 될지라” 는 말씀을 붙든 거부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두로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 해변가에 위치한 두로와 해변을 따라 북쪽 약 40km에 위치한 시돈에는 성경에 베니게라고 기록된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농사짓기에 부적당한 레바논 산맥 주위에 살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산에서 나는 좋은 목재로 어선을 만들어 해상무역에 종사했는데, 지중해 맞은 편 스페인의 지브롤터 근처까지 이를 정도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덕분에 경제 강국, 무역 대국이 되어서 두로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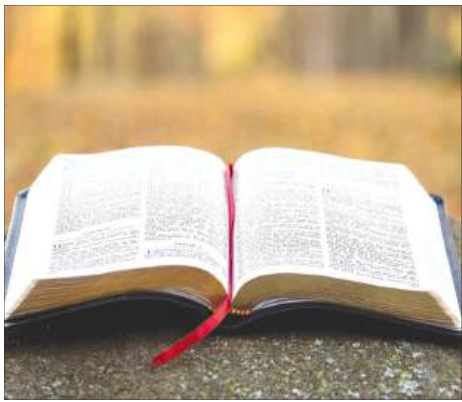
각종 진귀한 물건과 풍부한 곡물, 향품, 보석 등 돈이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부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문자가 ‘페니키아 문자’로 알파벳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페니키아를 라틴어로 ‘포에니’라고 부르는데, 강대국 로마와 2차에 걸쳐 ‘포에니 전쟁’을 벌일 정도의 강국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교만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두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자기를 증명하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기에 돈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자부심도 생기고 안정감에 빠져듭니다. 급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두로를 향해 경고의 말씀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

늘”(겔28:2) 결국은 망해서 없어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20세기 초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카네기, 록펠러 같은 ‘거부’들이 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니까 소유의 문제는 희미해지고 사명이 분명해졌습니다. 카네기는 미국 전역에 2,500개의 공공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카네기홀을 비롯하여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등 교육과 문화 분야에 3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고,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 건물도 지었습니다. 그는 핵무기 감축 관련 연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죽기 전까지 재산의 90% 이상을 기부한 ‘거부’였습니다. 록펠러도 철저히 십일조를 구별하여 드리며 록펠러 재단을 통해 3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록펠러 의학연구소, 뉴욕 현대미술관, 링컨 센터도 세우고 유엔본부 땅도 기증하였습니다. 허드슨 강변에 세운 리버사이드 교회당을 비롯해 미

국 전역에 5천여 개의 교회당을 건축했고, 세계 52개국에 자선단체를 세워 기아근절, 인구문제 해결, 기회 균등과 문화발전,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원조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엄청난 기부를 했습니다.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거부’였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든 2026년에는 세상에 빛이 될 ‘거부’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꿈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202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상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오픈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i.aurahell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ea@itsla.edu

“노화를 막는 시대를 넘어, 회복의 시대가 왔습니다”

주요 라디오 · 신문이 주목한 텔로유스(TeloYouth) 젊음회복 프로그램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CBS 기독교TV, NY 라디오코리아, NY K라디오, 아틀란타 라디오코리아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타운뉴스, 교차로, 밸리뉴스 등 주요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젊음 회복 기술, 텔로유스를 소개합니다.



건강의 ‘마스터 키’, 줄기세포

텔로유스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을 최대 3,600%까지 유도하는 10년 이상 앞서간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반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몸 전체의 구조적 균형, 기능적 회복,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텔로유스의 핵심 특징

10년 이상 앞서간 최첨단 생명공학 세포신호 기술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 최대 3,600% 유도
온몸의 구조 · 기능 · 감정 체계까지 재생 & 회복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무료
증정

새해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텔로유스 파우더 한병(\$300)

12가지 국제인증마크와 제3기관 임상실험들, 그리고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텔로유스의 퀀텀 젊음회복 프로그램을 증명합니다!

- Dr.D**Kim님: 갑자기 찾아온 전립선4기암 진단은 60여년간 의사생활을 해온 나에게도 실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음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전립선암수치를 측정하는 PSA가 400에서 209, 1.5, 0.8로 떨어지는 기적을 맞보았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이 좋아진 것은 신경과 전문의로서 가히 우리몸에서의 줄기세포가 불가능하다는 신경세포도 되살릴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 Dr.J**Park님: 22년간 가정주치의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혈당은 약으로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해 다리부종이 심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혈당이 조정되며 붓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A1C 가 8.1에서 7.3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이**님: 심장수술, 췌장암수술에 이어 두번의 뇌졸중이 오며 워커로 겨우 걷던 것이 지금은 혼자 걸을 수 있고, 물조차 입으로 먹을수 없어 G-tube를 낀 채 생활한지 1년이 넘었는데, 젊음회복 프로그램 5개월째인 지금, 조금씩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 S**님: 친구들이 보톡스 맞았냐고 물어봅니다. 70대에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팽팽할 수 있을까 거울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 J**님: 지난 40여년 사용해오던 십여가지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 생활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 이**님: 부끄러워서 숨기고만 있었던 발톱무좀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 W**님: 20년간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정**님: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날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 D**님: 70대이지만 동창회가면 제일 젊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 레**님: 90대에도 소일로 발일하시며 마을에서 제일 건강하시다는 저의 노모의 건강은 텔로유스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 F**님: 공황장애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많이 편해지고 자유로와졌습니다.
- R**님: 갱년기 증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늘 피곤하면 나타났던 구순염도 이제는 더이상 나오지 않네요
- S**님: 평생 고생하던 천식때문에 기침을 달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 멀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 하*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뽐뽐 솟습니다.
- **자님: 80대에도 고운 피부와 젊은 에너지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 J**님: 10년동안 고생하던 혈당조절이 이제 정상으로 잘 됩니다.
- N**님: 딸인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던 엄마가 저를 알아보세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 외 수많은 체험사례들을 www.TeloYouthKorean.com 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임상실험 Clinical Studies
인지기능 46.2% 향상/줄기세포배출량 377%. University of Miami
우울증개선 Blefegell Hospital, Kongsberg, Norway
스트레스호르몬 50%까지 감소. University of Trier, Germany
성욕구/만족도 University of Trier, Germany
근육량 증가 University of Colorado



이런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120세까지 건강하고 젊게 사시고 싶은 분들
- 역노화 (Reverse aging) 기술력으로 10년이상 젊어지고 싶은 분들
- 밤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 기운 없고 늘 피곤함
- 각종 염증으로 늘 고생함/ 스트레스를 못 이겨냄/ 의욕이 없고 우울함
- 장 트러블/ 소화력이 떨어짐/ 눈이 건조하고 침침함
-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짐/ 혈당조절이 힘들/ 통증에 시달림
- 몸의 여러 구조와 기능들이 만성적으로 고장나 고민하고 계신분들



TELOYOUTH

www.TeloHealing.com

[파트너 모집 | 40-50대 환영]

최첨단 생명공학 세포신호기술 기반
젊음회복 프로그램 전문 코치
의미 있는 일과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분

문의 : 레이첼 건강 수석 코치

☎ 714-851-8035

강준민 칼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를 아는 지혜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새해를 위한 설교를 준비하던 중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일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어 응답하십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단 9:21-23상).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눅 3:21하-22). 또한 예수님께서 겔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눅 22:43).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둘째,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찬양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시 22:3), 다윗은 찬양의 능력을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삼상 16:23하).

여호사밈 왕 또한 찬송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큰 군대가 그를 치러 왔을 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대하 20:12).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신 후, 여호사밈이 한 일은 전쟁터 맨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적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대하 20:21하-22). 찬양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결박이 풀렸습니다(행 16:25-26).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을 통해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전도의 문을 연 것입니다.

셋째,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가 등장합니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져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10). 그가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단 6:22). 절망의 순간이 구원의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요 6:11).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요 11:41).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넷째,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순종은 축복의 비결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길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큰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창 22:17-18).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생각지 못한 풍성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눅 5:5-6).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이 삶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이웃과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준 칼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권 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는 봄날같이 좋은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올 좋은 날씨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 형제와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귀 막고 눈을 감고 있었다면 고생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습니 다. 그러나 불같이 타오르는 사명을 감당 하려 나섰던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려진 사명을 위해 나의 편안 함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로 높은 자리에 오른 고위 관리였습니다. 고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아도 되는 세대였습니다. 저와 제 자식들이 갖는 한국에 대한 관심의 차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나와 큰 관계가 없는 듯한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차단하고 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국 땅에서 무너진 성벽과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산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일을 다른 사람의 일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였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거쳤습니 다.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뛰어든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였고, 왕에게 허락을 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질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였 습니다. 그가 열정에 불타서 바로 예루살렘으 로 뛰어갔다면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석하고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다시 정비해야 할 때가 있고, 사업체를 다시 돌아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다시 돌아보며 영성을 재건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먼저 많은 시간 기도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찰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려고 무너진 성벽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성벽의 재건은 단순한 성벽의 재건뿐 아니라 그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철저한 회개 가 있었고, 과거의 잘못된 일로부터의 단절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형제에게 보게 하신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이며, 형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형제와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바라기



© pexels.com/ Brett Sayles

변화 받은 자 - 김은주

오늘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도 만족하지 못한다

오늘 감사가 없으면
내일도 감사가 없다

그러나
어제 만족하지 못했어도
오늘 만족할 수 있고
어제 감사가 없었어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변화 받은 자이다

편안해요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 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힘

장점 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 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사순절을 훈련과 실천의 기간으로!

사순절 기간 하루 한끼 금식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소망을 나눕시다

World Share USA 홍보 대사



전용대 목사



지경 교수



초청합니다!

월드쉐어 USA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

- 일시: 2026년 2월 8일 오후 4시
- 장소: 미주 평안 교회 소예배실

World Share USA는 사순절 신앙 훈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순절 기간 중에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바른 신앙을 키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처럼 기도, 묵상, 나눔 그리고 선교가 실천되는 2026년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하며 사순절 신앙 캠페인을 펼칩니다! 목사님! 성도님! 교회와 성도들이 사순절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World Share USA 2026 사순절 캠페인 준비위원장 민경엽 목사의 준비위원 일동

2026 사순절 개요 시작일: 2월 18일~ 종료일: 4월 4일

World Share USA는 소망학교(아이티, 도미니카), 고아원(수리남), 전쟁 희생 유가족(우크라이나) 돕기를 합니다.

전쟁 희생 유가족, 전쟁 난민(우크라이나) 돕기를 합니다.

어떻게 참가할까요?

개인

월드쉐어USA로 사순절 나눔의 금식에 참가 통보 (가능한 미리 공지 및 통보 해주시면 사순절 기간을 더 잘 보낼 수 있습니다.)하시고, 사순절 금식 선교비를 월드쉐어USA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회

나눔의 금식 참가의사를 월드쉐어USA에 알려 주시고, 성도들에게 참가를 권면하시고 성도들의 금식비 선교비를 월드쉐어 USA로 전달하십니다.

월드쉐어 USA

전쟁과 극한의 추위에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 공화국 등 극빈지역 아동들과 소망학교에 영적 양육과 성경 필사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2026 나눔의 사순절 섬기시는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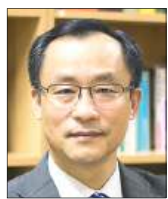
이중용 목사
이사장



곽건섭 목사
후원 이사장



민경엽 목사
준비위원장



김은목 목사
준비위원장



심상은 목사
집행위원장



이인규 목사
집행위원장



김영일 목사
준비위원



김정호 목사
준비위원



김바울 목사
준비위원



Sharing Bread for Soul

World ShareUSA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20세기 거산(巨山) 칼 바르트

칼 바르트가 이해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칼 바르트의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 해설

칼 바르트 | 김산덕 역 |
새물결플러스 | 268쪽 |
15,000원

지금 우리는 여전히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일자리 불안정, 경제적 불확실성, 관계의 파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직후 닦친 혼란이나 20세기 전쟁이 남긴 참혹함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실존적 위기 앞에 서 있다

“신조”와 “신앙고백”을 전공하여 굶이치고 요동치는 세상을 향해 교회가 시대마다 어떤 신앙을 고백하였는지를 신학사적으로 고찰하여 미래를 향한 선교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김산덕 목사는 이 점에 주목하여, 현시대에 고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칼 바르트의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 해설』을 우리말로 옮겼다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 그를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면 누가 비판할까? 김진혁은 판넨베르크(Wolfhard Pannenberg, 1928-2014)의 〈조직신학 서론〉(비아)을 서평하면서, 2006년 20세기 영향력 있는 32인의 신학자를 추천해 월드컵 방식으로 결승 진출을 그렸다. 8강에서 판넨베르크와 폰 발타자르가 만났고, 판넨베르크가 총격적인 패배를 했다고 상상했다. 그런데 우승자는 폰 발타자르를 꺾은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 1926-2024)이었다.

김진혁이 그린 그림은 판넨베르크의 탁월성을 간접적이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구도라고 생각했다. 몰트만, 발타자르, 판넨베르크 모두는 칼 바르트를 평가하고 비판하며 신학계의 거목이 되었다.

발타자르의 바르트 평가는 한국에서 따르는 자가 없을 정도로 독특하다. 김진혁은 그들이 바르트를 넘었다고 평가하는데,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바르트 옆에 자기 이름을 가져다 대는 것에 성공한 학자들이다. 그런데 칼 바르트는 32인의 게임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미있는 모습이다. 바르트 사상의 방대함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비서 샬롯테(Charlotte von Kirschbaum, 1899-1975)의 도움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는다. 샬롯테는 1929년부터 비서로 바르트의 집에서 1968년 바르트가 죽을 때까지 39년 동안 함께했다.

“그녀는 나와 마찬가지로 이 작업의 성장에 자신의 삶과 힘을 바쳤다. 그녀의 협력이 없었다면 이 작업은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바르트가 〈교회교의학〉III/3 서문에서 밝히기도 했다. 바르트는 1927년 〈기독교 교의학〉을 발간했고, 1932년 〈교회교의학〉(Kirchliche Dogmatik) I/1을 출간했으며, 〈교회교의학〉신학자가 됐다. 〈교회교의학〉IV/4가 1967년 미완성 출판됐고, 1968년에 사망했다.

바르트는 인생 마지막 무렵 〈하나님의 인간성〉(Die Menschlich-

keit Gottes, 1956: 2017년 신준호가 새물결플러스에서 번역 출판)을 집필했다. 이번에 바르트 단편 중 ‘Die christliche Lehre nach dem Heidelberger Katechismus(1947)’이, 김산덕 번역으로 새물결플러스에서 〈칼 바르트의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됐다.

바르트가 이해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무엇일까? 김산덕은 요리문답(Catechism)을 신앙문답으로 번역했는데, 일본식 어휘(信仰問答)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1954년 번역됐다는데, 일본은 독일 작품을 아주 신속하게 번역하는 것 같다. 〈교회교의학〉도 우리는 최근에야 번역했는데, 일본은 오래 전 전집이 번역됐다. 한국·일본·중국의 신학계 어휘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동일한 한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치시킨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 신학계는 일본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일본어 번역이 좀 더 익숙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보수적 성향에서 칼 뵘트(뵘트, 박형룡, 서철원)를 사용하는데, 일본의 영향으로 칼 바르트(이종성: 카를 바르트)라고 한다. 우리는 Baltisches Meer를 ‘발트해’라고 읽으면서 Barth는 ‘바르트’라고 읽는다. 그러나 언어는 합리성보다 시장성이 우선한다.

한국교회는 WCC, 로잔, WEA 등으로 큰 격동을 겪고 있다. 이 거대한 격동에서 보이는 함수는 ‘동성애’이다. 보이는 것을 공격하는 것은 결코 꺾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이 거대한 격동에 보이지 않는 함수가 칼 바르트라고 생각한다.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신학을 했다가 칼 바르트 비평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지금도 몇 줄씩 바르트의 글을 읽고 있다. 그래서 바르트에 관한 저술은 꾸준히 구입하고 있다. 바르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해설했다는 정보를 잘 알지 못했는데, 책 소개를 듣고 바로 구입했다. 주마간산으로 살핀 뒤 간략하게 서평을 올리며 공유하고 있다.

칼 바르트의 저술이 번역되는 것은 좋다. 바르트의 사상을 좀 더 빠르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르트에 대한 긍정적 사상이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침묵시키며 잠재시킬 수 없다. 적극 개방하고 적극 나서야 한다.

바르트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바르트가 해설했다기보다, 바르트의 논제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융합시킨 것으로 보인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은 129문으로, 52주간 설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바르트는 28장으로 나눴다. 1-2장은 개론적 설명이고, 3장부터 28장까지 요리문답 해설을 구성했다. 그런데 19장부터 28장까지는 해설되지 않은 미완성 작품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강의록으로 보이는데, 18장까지 강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바르트는 〈교회교의학〉처럼 시작하기 전 핵심문장을 남긴 뒤 설명을 진행한다. 그 핵심문장은 바르트의 사상으로 보이고, 그것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맞췄다고 평가하고 싶다.

번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바르트의 사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핵심 용어는 독일어로 표기해야 한다. 이 저술에서 상당히 많이 반복

되는 단어로 ‘정상성’이 있는데, 독일어를 찾지 못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교리’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독일어가 없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다.

본문에서 ‘Lehre’를 ‘교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좋은 번역이 아니다. ‘doctrine’도 ‘교리’라고 하지만, ‘Dogma’도 ‘교리’로 번역한다. 복음은 ‘기쁜 사신(Botschaft)’으로 표현했다. 이런 단어는 독일어 표현을 반복해도 나쁘지 않다. 이 상태로 바르트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결국 한 좋은 번역서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영어 번역까지 구매했다.

바르트의 글이나 그에 관한 글을 만나면 어떤 반응이 온다. 그래서 웬만하면 구입한다. 읽든지 읽지 않든지 구입한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좋아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해설했다고 하니 꼭 읽어야겠고,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이어서 그런지 깊은 내용보다 간략한 자기 개념이 나열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저자의 믿음과 심장을 보려는 의도는 없는 것 같다.

고경태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39



And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d me, that I shall
lose none of all those
he has given me, but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JOHN 6:39

龍山 龍山 龍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안심하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2026” 달라지는 혜택, 많은 약 보험의 많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Annie Moon이 필요하십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으실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 Disccaimer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홍보대사
고두심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15 organizations which offer 97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CARE, or your local 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your options."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안 반 호이연, 인생의 은유로서의 풍경화

종교개혁 정신 잘 구현했다고 평가받는 가톨릭 화가

철저한 사생에서 출발하지만
실제에 이야기 접목, 가상 회화
풍경 재현 대신 영적 삶 은유
17세기 회화적 수사학 구사해
‘풍경’으로 ‘인생문제’ 풀어내
일관된 작품 주제 구속의 갈망

안 반 호이연(Jan van Goyen, 1596-1656)은 1596년 렘브란트의 고향인 라이덴에서 태어났다. 정확히 렘브란트보다 10년 전 일이다. 젊은 시절 반 호이연은 하르렘에서 에사이어스 반 데 벨데(Esaïas van de Velde)에게 사사하며 1년을 보냈고, 빛과 공간의 통합에 특출한 면모를 과시했다. 검은 단색조 화면과 원근 차이를 윤곽 대비로 조절하는 대기원근법은 그의 회화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부분이다.

그는 루이스달(Jacob Ruisdael), 몰레인(Pieter de Molijn), 호버마(Meindert Hobbema), 카이프(Aelbert Cuyp) 등과 함께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의 대표 화가로 손꼽힌다. 그가 평생 제작한 작품은 회화 1,200여 점, 드로잉 800여 점 등 총 2,000여 점을 헤아린다. 대부분이 네덜란드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제작된 것들이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여행 중 그린 여러 지역 풍경이 남겨져 있으며, 대부분의 스케치에 장소와 날짜를 기록해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의 풍경화는 실제에 충실한 전통적 의미에서의 기록화가 아니다. 오히려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철저한 사생에서 출발하지만, 이것이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의 풍경화는 실제에다 자신의 이야기를 접목시킨 가상의 회화이다.

안 반 호이연의 풍경화는 실제 풍

경의 재현으로 보기보다, 영적 삶에 대한 ‘은유’로 풀이된다. 여기서 말하는 ‘은유’는 우리 인생사를 시각 이미지에 결합시키는 표현법을 말한다. 이 표현법은 17세기 풍경화가들이 즐겨 구사했던 회화적 수사학이었다. 호이연은 ‘풍경’을 통해 ‘인생 문제’를 다뤘다.

그의 1차 관심은 나그네가 여행하는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었다. <모래언덕>(Dune Landscape, 1631)을 보면, 황량한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울타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뒤편에 어슬렁거리는 인물들이 나온다. 울타리에 팔을 걸치고 있는 사람과 앉아서 물끄러미 양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잡담을 하며 세월을 보내는 사람, 안락에 빠진 사람, 빈둥거리는 사람 등.

그림의 분위기는 한가로운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삭막한 편이다.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이지 않고,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모래언덕과 낡아 빠진 울타리, 하늘에 드리운 먹구름이 이것을 한층 가중시킨다.

그림의 하이라이트는 화면 맨 오른쪽에 등장하는 붓집 진 나그네다. 여행자는 사람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괴로움만 안겨주는 그 자리를 떠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그곳을 떠나자니 두려움이 앞서고, 머물자니 탄식만 나올 뿐이다.

몇 년 뒤 제작한 <농부들이 있는 농가>(Farmhouse with Peasant, 1636) 역시 같은 맥락에 있는 작품이다. <모래언덕>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갈색조를 띠고 있으며, 파



▲안 반 호이연, 모래언덕(Dune Landscape, 1631).

노라마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림의 구도는 농가를 중심으로 좌우편에 인물 군상을 위치시키고 있다. 허름한 농가의 지붕은 허물어져 있고 나무 골조를 앙상하게 드러내고 있다. 비라도 쏟아지면 엉악없이 새고, 찬바람이라도 불면 온몸으로 맞아야 할 것 같다. 축사(畜舍)로나 쓰임직한 이런 허름한 곳에 사람이 산다는 것이 믿기질 않는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등장인물들은 까닭 모를 여유까지 부리고 있다.

그런데 왼쪽 지평선에 붓집을 진 두 사람이 길을 떠나는 장면이 눈에 띈다. 그들은 옛 생활을 청산하고 꿈을 찾아 나서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 저 멀리 그들을 맞아줄 가옥이 보이는데, 전면에 크게 보이는 폐가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숲으로 둘러싸인 그 곳은 평화스럽고 아늑해 보인다.

주인공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소망의 삶을 향해 나가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그림은 지금 특정 공간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인간의 실체적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두 그루의 참나무가 있는 풍경>(Landscape with Two Oaks, 1641)은 호이연의 화의(畫意)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호이연은 그림 외에 다른 일도 해보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때 반짝 성공을 거둔 적도 있지만, 사업에는 소질이 없었다. 사업 실패는 이웃에 대한 이해로 연결됐다. 그의 그림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림의 주제 문제다. 이 그림은 앞의 그림보다 ‘참된 삶’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고목 아래서 두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를 주

고받는데, 앞의 그림에서 폐가가 여기서는 고목으로, 농부는 붓집을 진 나그네로 치환돼 있다.

하늘은 금세라도 폭우가 쏟아져 내릴 듯 찌푸려 있다. 침잠된 분위기는 그림 중앙의 쓸쓸한 나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두 그루 나무는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아니, 이미 고목이 되

망의 씨앗이 떨어졌고, 생명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제 주인공은 ‘절망의 땅’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소망의 동산’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이곳이 신음에 애워싸여 있다면, 저곳은 은혜의 빛이 비친다. 만일 여행자가 그곳을 떠날 용기를 내기 못했다면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호이연은 평생과 로렐처럼 이상 세계를 꿈꾼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온갖 시련을 겪으며 끝내 복된 삶에 이르는 인생여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스 로크마커(Hans Roomaaker)는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구현한 화가로 기술한 바 있다. 특히 그는 <다가오는 폭풍>(Approaching Storm, 1646)을 분석하면서 보트의 선원들이 감잡한 어둠을 헤치고 빛이 창창한 포구 쪽으로 나가는 그림을 통해 은혜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인간상을 표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하였다.



▲안 반 호이연, 두 그루의 참나무가 있는 풍경(Landscape with Two Oaks,

어버렸다. 여느 작품과 마찬가지로 작품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태연히 뒷집을 지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땅에 풀썩 주저앉아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그림이 주는 의미는 삶의 행로가 허무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화면 왼쪽에 행랑을 진 여행자가 눈에 들어온다. 그는 머물던 곳을 박차고 새 동지를 찾아 떠나고 있다. 그가 향하는 곳은 화면 맨 왼쪽 귀퉁이에 보이는 침탑이 있는 교회이다. 그 교회는 하도 작아 보일락 말락 한다. 목적지를 향해 그가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소

호이연에게 예술이란 카메라처럼 자연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한 인간의 통찰이었다.

호이연의 작품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는 ‘구속에 대한 갈망’이다. 그는 황량한(저주받은) 세계를 평화롭고 찬란한 세계에 대조시킴으로써, 구속에 관한 소망을 자신의 예술에 투사했다. 그는 비록 개신교 신자가 아니었지만, 종교개혁의 정신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심오한 영적 진리를 표현했다.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안 반 호이연, 농부들이 있는 농가(Farmhouse with Peasant, 163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가주간호학교
Veritas CNA School

Veritas CNA School (간호보조사 과정) 가장 안정된 직장과 다양한 베네핏이 주어지며 의료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간호보조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보장하며 직접 도와 드립니다.

가주보건국(CPHD)의 정식인가를 받은 가주 간호보조사 학교는 CNA Certification (간호보조사 자격증) 시험 준비 코스가 있습니다.

6-8주 과정이며 한국어 강의도 있습니다
병원, 클리닉, 양로병원 등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오버타임 수당, 휴가와 병가수당, 은퇴연금, 의료보험등 다양한 혜택과 취업보장! 16세이상 소시얼 넘버와 텍스 넘버가 필요합니다.

지역 : 엘에이 , 파사데나, 산 마리노

■Contact information
Phone: T.(213)216-4944
jungyeemail@gmail.com
http://www.veritascareer.com



VERITAS CAREERS
COLLEGE

손현보 목사, 출소 후 첫 메시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다”

李 기자회견, 제 설교 이야기해
개신교 수사 지시, 누가 막겠나
‘이재명을 죽여야’ 라고 안 했다
가짜뉴스 적발? 대통령이 바뀌
사람이 일평생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일주일 만 다 이루서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가 1월 30일 오전 판결로 출소한 후 이날 저녁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금요 비상기도회에서 소회를 전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시편 35:1)”라는 말씀을 낭독한 그는 “이 다투의 기도를 지난 5개월 동안 가장 많이 드렸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확실한 말씀이었다”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마음은 너무 평안했다. 전혀 억울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는 자와 대신 싸워주시면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손현보 목사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을 때, 믿음대로 해주신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며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극좌파들이 아무리 저렇게 나와도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면 콧김에 다 날아갈 것인데 걱정할 게 뭐 있나”라고 전했다.

손 목사는 “구치소에 있는 직원과 몇 번 상담을 했을 때, ‘30년 이상 근무하고 내일모레 퇴직인데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 봤다’고 하더



▲손현보 목사가 1월 30일 세계로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유튜브

라. 들어오면 안절부절하고 걱정만 하는데, 저는 재미있다고 하니까”라며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니 교회도 걱정할 것 없다. 그런 기도를 수도 없이 하고 믿고 있었기에, 모든 것이 재미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봤다. 제 이야기를 하더라.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소서’ 기도했다”며 “대통령이 개신교를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제가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했지, ‘이재명을 죽여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손현보 목사는 “주어와 목적어를 살짝 바꾸더라. 거짓 플랫폼이나 가짜뉴스를 적발해 처벌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다”며 “글자를 바꿔서 공격하는데, 누가 싸워서 이기겠는가? 제가 나서

서 싸우겠는가, 어느 교회가 나서서 싸우겠는가? 그 서을 퍼런 정권에 어느 장관이 그게 아니라고 하겠나?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

손 목사는 “그러나 기도의 힘, 믿음의 힘이란 그런 것이다. 그 기자회견 다음에 곧바로 제 두 아들이 백악관에 초청받아서 1시간 반 동안 모든 일들을 다 브리핑하고, 각 분야 사람들도 만나게 됐다”며 “김민석 총리가 미국에 가기 이틀 전에,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사형 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10년형도 아니고, 사실 별 것 아닌데 저를 꼭 집어서 부총리가 ‘손현보 목사를 왜 구속시켰나? 답답할 수 없다’고 했다. 총리가 발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은가? 제가 언제 미국에 불러달라고 한 적 있나? 아는 사람이 있나? 그런데 미국에서 네 번이나 와

서 면회하고, 부산 총영사가 재판에도 참석했다. 국가 지시 없이 참석할 수 있었겠나”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외교 언어란 아주 신중하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도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라고 한다. ‘깊은’ 한마디면, 정말 전쟁이 날 만한 사건이다. 외교 연사는 그런 것”이라며 “그런데 국무부 지시로 재판 때 수석영사가 참석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손현보 목사는 “미국 부통령을 누가 움직일 수 있나? 우리가 권력이 있나? 그런데도 우리를 지지해주고, 미국 목사님들 1만 명이 서명해서 올려 주셨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1천 명 서명 받기도 어렵다”며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람이 일평생 뛰어서 할 수 없는 일도 일주일만에 다 이루신다”고 했다.

손 목사는 “교인들도 한여름부터 한겨울까지 1인시위를 해 주셨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참 신기하고 놀랍다고 하시더라”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절대로 잊어서 안 된다. 우리는 약하지만,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신다’는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하나님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평안히 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밝혔다.

또 “독방은 좁아서 팔도 다 못 뻗지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 제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고 하면 좌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나”라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다. 군대 생활도 했는데, 여기는 호텔이다. 제가 거기서 울고 있으면 변호사들도 교인들도 마음 아프고 그렇지 않겠나?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를 거쳐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도 많았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런 기쁨이 닦여서 10.27 때 100만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다. 코로나 때문에 이룬 것이다. 그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동참해 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세이브코리아도 할 수 있었다”며 “비록 저는 감옥에 다녀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불편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기도하면, 그 기도를 믿어야 한다. 믿는대로 역사하신다”며 “학생들 편지도 다 읽어 보고 기도했다. 우리 아이들이 빨리 들었다. 여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 보니, 대학교에 가서도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역주행 ‘신의악단’, 마침내 박스오피스 1위… 100만 관객 눈앞

2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신의악단〉은 어제(1일) 하루 동안 6만5,754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일일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굳건히 지켜오던 멜로 영

화 ‘만약에 우리’(6만3,912명)를 제친 기록이다. 개봉 첫 주 5위로 출발했던 영화가 한 계단씩 순위를 뒤집으며 마침내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신의악단〉의 1위 등극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견된다. 개

봉 당시 경쟁작 대비 최대 10분의 1 수준의 적은 상영관 수로 출발했으나, 오직 ‘작품의 힘’과 ‘관객 입소문’만으로 판세를 뒤집었다.

개봉 2주 차부터 ‘좌석판매율 1위’를 놓치지 않는 저력을 보여준 〈신의악단〉은 관객들의 자발적인 상

영관 확대 요청과 N차 관람 열풍, 그리고 싱어롱 상영회 매진 행렬에 힘입어 기적 같은 스코어를 만들어냈다.

화려한 스타 캐스팅이나 물량 공세 대신, 북한 보위부 장교가 가짜 찬양단을 만든다는 진정성 있는 스

토리와 투박하지만 따뜻한 휴머니즘이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라고 제작사 측은 전했다.

박스오피스 1위 탈환과 함께 〈신의악단〉은 누적 관객 수 100만 명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의 폭발적인 기세라면 며칠 내로 100만 관객을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된다.

제작사 관계자는 “관객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주신 기적 같은 1위”라며 “단순한 흥행을 넘어, 좋은 이야기는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남고 싶다. 100만 돌파의 순간까지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벅찬 소감을 전했다.

김진영 기자

학생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규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ngamsa

YouTube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2026년 새해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 궁금하시죠? 다섯가지 방법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2026년이 밝았습니다. 아직도 싸인을 하시거나 일기를 쓰실 때 2025년이라고 적으시죠? 관찰합니다. 그만큼 새해는 됐지만 우리에게 익숙치 않기 때문인데, 뭐 이참에 우리 2026년 다시 시작한다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2026년 병오년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으겠다는 건지, 어떻게 부자가 되겠다는 건지, 과연 새해 파이낸셜 결심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미국인 일반인들이 결심한 새해 파이낸셜 결심 Top 5를 살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결심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현재 가장 많은 미국인이 꼽은 1위 결심, 여러분 혹시 추축이 가능하신가요? 아 부자가 되겠다는 밀리언어어가 되겠다는 아닌 놀랍게도 빚갚기 paying off debt 이었습니다. 그만큼 평균 미국인들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총 가계부채는 2025년 기록 기준 약 \$18.2~18.6조(조는 trillion, 1조 = 1,000 billion)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모기지,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등 모든 소비자 부채를 합한 금액이지요. 이 중에서도 모기지부채가 70%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미국 평균 가구당 부채는 약 15만불 이상으로 추정되고요. 평균 개인 기준으로는 약 63,000불 정도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늘어도 높은 생활비·이자 때문에 채무 부담이 계속된다는 응답이 많은 이는 2024년 말부터 계속 증가했는데요, 2024년 가계 부채가 약 18조 달러였다면 현재 2025년 말 18.58조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금융 스트레스 수준이 엄청 높아졌고, 거기에 미국인의 86%가 개인의 재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66%는 높은 보통 수준이상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가장 많은 미국인들의 새해 재정결심은 저축을 늘리겠다는 비상금 만들기 입니다. 미국 인구의 50%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준비가 전혀 안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응급자금 emergency fund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Fidelity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64% 이상이 “금전적 목표를 세웠다”고 보고됨. 이를 통해 서특히 2026년은 단순 저축보다 체계적인 *저축 플랜(now savings plan)*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이걸 참 바람직하죠. 그냥 무작정 돈을 모아야겠다가 아니라 체계적인 saving plan이런 부분은 또 저희같은 재정전문가가 도울 수 있으니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하겠다는 건데 장기적으로 무척이나 고무적인 결심이라고 봅니다.

세번째는 특히 20~30대들에게 인기 있는 답변이었는데요, 여행, 자동차, 집 구매와 같은 큰 지출을 위해 미리 저축을 하고 싶다고 했고, 네번째는 지출을 좀 줄이자가 새해 재정 결심에 들어갔습니다. 약 **30~49%**의 미국인이 “지출을 줄이고 소비를 절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움.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구독 서비스, 외식 횟수, 충동구매 등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불필요한 과부화된 지출을 줄이겠다는 결심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음. 세대별로 이 저축의 목표나 이 유도 조금씩 다른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The Motley Fool의 조사에 따르면 출생연도: 1997년 ~ 2012년 약 13살 ~ 28살인 Gen Z: 큰 구매(차·집)와 저축, 투자 관심 높음. 1981년 ~ 1996년 29세에서 44세까지인 illennials: 부채 감축 + 여행·일상 큰 지출 대비 저축 / 1965년 ~ 1980년 2025년 기준 나이: 45세 ~ 60세, 1946년에서 64년까지 태어나 현재 61세부터 79세까지인 베이비부머 (Baby Boomer)들은 Gen X & Baby Boomers: 퇴직 저축·부채 정리 + 주택 개선·은퇴 준비등이 재정 목표이자 저축의 이유였다는 거죠. 다섯번째는 돈을 더 벌어서 인컴을 늘려야겠다 인데요. 추가 수

Sunyoung Moon

Financial Professional | 재정전문가

626.827.9599

SYMOUNMONEYTALK@GMAIL.COM

Wisecalifornia 문선영의 머니토크

입원으로 사이트 잠을 잡거나 그를 위해서 기술 교육 커리어등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버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곤 느끼는 사람이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물가라던지 등등을 고려 할 때 우리의 인컴으로 더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주택가격이나 모기지자 수입에 차지하는 적당한 비율이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면 나의 인컴의 28% 미만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택 중간가격을 85만불이라고 놓으면 20% 다운페이하고 모기지 이자 6.2%를 받는다면 월 페이먼트가 모기지 원금과 이자, 그리고 주택 보험료 세금등을 포함하면 한달에 거의 6천불 페이먼트가 나오는 데 이 6천불 페이먼트를 내기 위한 적절한 인컴 수준은 월 소득 약 \$21,400불이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실제로 주택 모기지 부채로 인한 금융 재정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의 재정결심 이 답 5에 해당되시나요?

작년 Beyond Finance의 설문에 따르면 2025년에 설정한 재무 관련 목표 중 83%가 포기되었고, 19%만이 목표를 한 해 동안 유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올 해는 그 무엇을 결심하건 끝까지 2026년에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든든한 재정전문가 한명은 옆에 두시길 바랍니다.

저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과 우리 에이전트들 같은 분들 말이지요.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KINGDOM ENTREPRENEUR

바이오텍 비즈니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

텔로유스 바이오텍 B.A.M

Business As Mission 성공사례 발표

AI와 로봇이 인간의 지성과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 세상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 비즈니스는 사명입니다!
- ✓ 사명은 영향력입니다!
- ✓ 영향력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텔로유스 바이오텍은 단순한 제품이나 수익을 넘어, 세포 신호 소통(Cell Signaling) 기술을 기반으로 생명을 회복시키고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킹덤 비즈니스(B.A.M)’의 실제적 모델을 실현해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가로 부르심 받은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이론이 아닌 검증된 **성공사례**를 통해

- 비즈니스가 어떻게 선교가 되는가?
- 신앙과 기업이 분리되지 않는 실제 구조
- 생명 회복 기술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 영적 영향력
- 차세대 Kingdom Entrepreneur를 위한 비전과 기회를 실제 사례와 간증 중심으로 공유합니다.

- 일 시 : 2026년 **2월 28일** (토) 오후 3시
- 장 소 : 텔로유스 본사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 초청 대상 : 기독교 실업인 · B.A.M에 관심 있는 분, 바이오텍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
목회자 · 선교사 · 차세대 창업가 40-50대 환영
- 신청마감 : 2월 25일까지 예약 필수 (RSVP) (큐알코드 스캔 후 등록)
- 문 의 : 714-732-8477 Email: pjkim2000@gmail.com
폴 김 선교사 (TeloYouth Biotech B.A.M Director / TeloYouth 젊음회복프로그램 수석코치)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



폴 김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뱀 디렉터



Dr. Chris Morris
세포 신호 폼물레이터



Dr. Tina Johnson
세포 신호 폼물레이터



(큐알코드 스캔 후 등록)